



영화와 인생에 대한 오마주와 몽타주

《박찬욱의 오마주》와
《박찬욱의 몽타주》 펴낸 박찬욱 감독
현실주의자와 몽상가의 경계에서

요즘 가장 바쁜 영화감독 중 한 명인 박찬욱 감독이 그동안 틈틈이 지면에 발표한 글과 인터뷰, 예전에 썼던 원고들을 묶어 영화 평론집 《박찬욱의 오마주》와 산문집 《박찬욱의 몽타주》를 펴냈다. 두툼한 두께도 두께려니와 그 내용의 충실함과 독특한 개성을 뽐어내는 필력이 놀랍다. 책 한 권, 음악 한 곡도 허투루 접하지 않고 가벼이 추천하지 않는다는 그의 말처럼 풍성하고 진지하다. 그러면서도 목에 힘이 들어간다가거나 감동과 교훈을 강요하지 않는다. 단지 자신의 생각에 당당하고 솔직하고 유쾌하게, ‘매력적인 뻔뻔함’을 과시한다.

당당한 현실주의자로서의 삶의 철학

그에게 딸이 생긴 이후로 영화에 어린 여자 아이가 자주 등장하게 되었다. 하지만, 《박찬욱의 몽타주》에 담긴 부녀간의 정겨운 일상을 엿보다 보면, 그에게 딸은 영화에서처럼 구체성을 붙여 넣어주는 이상의 존재임을 알 수 있다. 3년 전, 초등학교 1학년인 딸아이가 가훈을 지어오라는 숙제를 받아 온다. 박 감독은 고민하다 ‘아

님 말고’란 가훈을 지어준다.

“학교나 사회에서 무조건 ‘하면 된다’고 가르치는 것은 잘못된 거죠. 현실에서는 열심히 해도 뜻대로 안 되는 경우도 많으니까요. 좌절이나 실패에 대해서 너무 연연하지 말고 그럴 수도 있다는 맘으로 살자는 뜻이죠.”

최선을 다해 노력했으나 뜻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때 특 특 털어버릴 줄도 알아야 한다는 것이다. 이는 모험심과 도전 정신을 강조한 것이기도 하다. 결과를 두려워하면 어떤 새로운 것도 시도할 수 없기 때문이다. 그리고 1년 후, “아빠, 이 종은 두 가지 소리를 낼 수 있다”며 처음엔 종을 그냥 흔들어 맑은 소리를 내고, 다음엔 몸통을 감싸 쥐고 흔들어 맑고 탁한 소리를 들려주는 딸의 모습을 보고, 그 ‘너그러운 귀’와 ‘현명한 눈’에 감동을 받아 새로운 가훈을 생각하게 된다. ‘두 가지 종소리를 듣는 사람이 되자.’

매사에 ‘쿨’한 태도로 살 것 같은 그는, <철학자>《박찬욱의 몽타주》라는 글에서 “어떤 생각이든 래디컬하게, 즉 뿌리까지 깊게 파내려가지 않으면 별로 가치가 없다”고 말한다. 의외로 어떤 집요함이 느껴진다.

“정신의 영역에서는 철저히 탐구하는 태도가 필요하다는 뜻이죠. 하지만 실생활에서는 어떤 일을 집요하게 들고 늘어지거나 집착하지 않습니다. ‘쿨’ 하디기보단 매우 현실적인 태도죠. 이런 태도는 옳고 그름의 문제가 아니라 삶을 좀더 편하게 사는 나만의 방식입니다.”

‘냉소와 비유’의 창 너머 진지한 관찰

박찬욱 감독의 영화에 등장하는 유괴나 살해 장면, 인신매매 등 부조리한 사회상에 대한 묘사에서는 날카로운 사회 비판의식이 느껴진다. 영화 <복수는 나의 것>에서는 계급 문제를 직접적으로 다루기도 했지만, 사회적 이슈를 담기 위해 영화작업을 하는 것은 아니다.

“그런 묘사들은 직접적인 사회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또 다른 무엇을 비유하는 화법입니다. 예를 들어 영화 ‘친절한 금자씨’에서 아이들의 살해 장면이 담긴 비디오는 ‘유괴’라는 범죄보다 알카에다의 ‘김선일 씨 납치 사건’ 비디오에 대한 일종의 비유죠.”

하드보일드 소설을 좋아하는 그의 스타일답게 영화들도 냉소적인 기운이 감돈다. 하지만 박 감독은 표면적인 냉소 이면에 자리한 아이러니컬한 상황과 유머를 주의깊게 봐주길 원했다.

“겉으로 드러나는 것보다 그 이면에 놓인 생각이나 태도가 중요한 거죠.”

박 감독은 한반도에 전쟁기운이 감돌던 2002년에 썼던 <전쟁>((박찬욱의 몽타주))이란 글에 인용한 소설의 한 구절을 통해 예술가로서의 자의식을 토로하기도 했다.

“대학살이 있는 후에는 만물이 고요하고, 새들을 제외하고는. 그럼 새들은 뭐라 합니까? 대학살에 관해 새가 할 수 있는 말이란 고작해야 ‘ㄹ ㄹ’ 정도가 아닐까요?”

- 커트 보네거트 <제5도살장> 중에서

작가 커트 보네거트는 ‘반전소설을 쓰느니 차라리 반빙하소설을 쓰라’고 말했다. 빙하만큼 전쟁도 막기 어렵기 때문이다. 이처럼 냉소적인 말을 내뱉었지만 보네거트는 반전소설을 썼다. 박 감독 역시 “보네거트처럼 현실에 냉소를 보내면서도 자기 일을 묵묵히 하는 것이 모든 예술가가 지녀야 할 태도”라고 생각한다.

그는 <박찬욱의 오마주>를 통해 개성 넘치는 ‘B무비’*에 대한 애정을 내비치고 있다. “할리우드 스튜디오 영화 제작 시절, 감독들은 주어진 시나리오와 정해진 틀 안에서 작업을 해야 했기에 자신의 재능과 독창성을 발휘할 기회가 없었습니다. 그렇지만 그런 환경 속에서도 나름의 개성을 발휘, 자신이 하고 싶은 이야기를 어떤 식으로든 전달해 내는 감독들이 있었죠. 그런 감독들에게서 ‘B무비’의 걸작들이 나왔습니다.”

*B무비: 원래는 초창기 미국영화 시장에 등장했던 동시상영용 영화 Booking 무비를 지칭. 현재는 저예산 인디영화까지 아우르는 용어.

B무비만의 독특한 탈출구 찾기 비법은 그의 글쓰기에도 적용되었다. 원고 청탁을 거절하지 못한 박 감독이 선택한 방법은 ‘피할 수 없다면 즐기자’였다.

“경위가 어떻게 되었던 어차피 맑은 일이라면 열심히 해야지. 마치 내가 스스로 쓰고 싶어 안달이 나서 쓰듯이 썼다. 그래야 즐거울 수 있으니까. 즐거워야 빨리 끝나니까. 빨리 끝내야 내 시나리오를 쓸 수 있으니까. 그런 맘으로 쓰다보면 정말 그렇게 되고는 했다.”

- <박찬욱의 몽타주> ‘책머리에’ 중에서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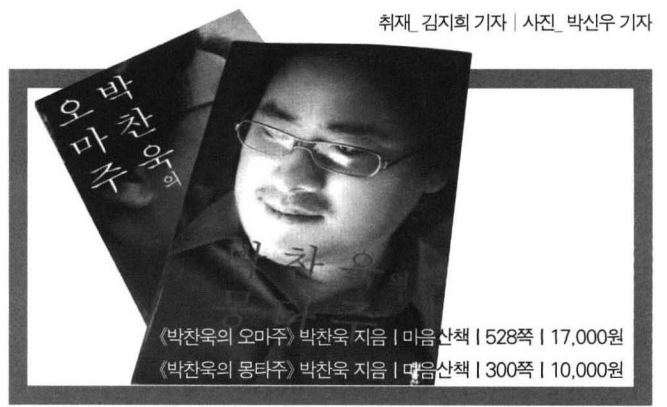
세상에 대한 직설화법...시류 좇기보단 ‘하고 싶은 일’ 찾아

말과 글이란 매개체를 통해 자신의 생각과 스타일이 왜곡되거나 고정된 틀 속에 묶이는 것을 싫어하는 그의 직설화법은, 익숙치 않은 이들에게 불편함을 주기도 한다. 하지만, “지나친 자학이나 반성에 빠지기보단 자신을 긍정하고 때론 자아도취에 빠질 줄도 알아야 한다”는 자신의 말을 행동으로 옮기는 힘이 그 ‘뻔뻔스런 매력’의 비결일 것이다.

박찬욱 감독의 능력을 시샘하는 것도, 그 도전적인 매력을 받아들이거나 외면하는 것도, 순전히 독자의 자유다. 다만, 그 저 자신이 좋아하는 일을 열심히 잘 하려고 노력할 뿐이라는 그의 군더더기 없는 자신감이 신뢰를 더한다. 스스로를 ‘상업적인 영화를 만드는 감독’이라고 지칭하지만, 시류를 좇기보단 관객과의 의사소통을 염두에 두면서 자신이 말하고 싶어 하는 바를 관철시키는 사람. 감독의 자질은 ‘감독다운 성격’이나 ‘카리스마’가 아니라, “무엇을 하든 잘 하는 게 중요하다”는 믿음대로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박찬욱 감독이다.

현재 새 영화 준비에 여념이 없는 박찬욱 감독은 영화 <올드 보이>와 <친절한 금자씨>로 자신에게 쏟아진 화려한 찬사와 비판의 소리를 뒤로 하고 묵묵히 자신만의 새로운 길을 가고 있다. 독특함으로 조합된 활자의 몽타주가 주는 즐거움을 또 언제 누릴 수 있을지는 기약이 없다. 하지만 앞으로도 부지런히 영화를 만들어낼 것이니 아쉬움을 잠시 접고 그의 영화를 기다릴 일이다. 아니, 올 겨울엔 ‘박찬욱의 오마주와 몽타주’만 제대로 정독해도 충분히 등 따습고 배가 부를 것 같다. **★**

취재_김지희 기자 | 사진_박신우 기자



<박찬욱의 오마주> 박찬욱 지음 | 마음산책 | 528쪽 | 17,000원
<박찬욱의 몽타주> 박찬욱 지음 | 마음산책 | 300쪽 | 10,000원